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야”...임기 초기 푸틴과 회동 시사

파나마 운하에 비싼 수수료 지적하며 ‘반환’ 재차 위협 에너지 규제 취임 첫날 종식...석유·가스 시추 공약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임기 초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



인은 이날 청년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 USA’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한 ‘아메리카 페스트 2024’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것은 “내가 빨리하고 싶은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이 가능한 한 빨리 나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만남)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이 연례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에 화답하면서, 그와 최대한 빨리 만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어 이날 연설에서도 미해군 및 상업용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문제 삼으면서 파나마 정부에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는 ‘엄포’를 되풀이했다.

그는 “파나마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터무니없고 매우 불공평하다”며 “(미국이) 파나마에 부여한 엄청난 관세담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완전한 강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미국이) 파나마에 운하의 소유권을 넘긴) 이 관대한 기부(의 도덕적·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속하고 의문의 여지 없이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 파나마 당국자 여러분,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미국 주도로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당시 자금이 전인인 쯔대 대통령인 윌리엄 매킨리의 업적 덕

분이라면서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고 훌륭한 사업가였다. 사업 원칙을 활용할 줄 알았고, 관세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다”고 했다.

매킨리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해 평균 50%의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에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한 ‘매킨리 관세’의 기획자라는 점을 언급한 것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더해 북미 최고봉(6천194m)인 알래스카의 드날리산의 이름을 매킨리산으로 복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애초 알래스카산맥의 주봉인 이산은 매킨리산이었으나,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알래스카 원주민의 청원을 받아들여 드날리산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 경제를 구하기 위해 취임 첫날 에너지 생산에 대한 바이든의 모든 규제를 끝내고, 그의 ‘제 정신이 아닌’(insane)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며, 천연가스 수출 금지를 취소하고, 알래스카의 세계 최대 규모 매장지를 다시 열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면 미국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재개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석유와 가스, 다른 것들을 많이 갖게 될 것이며,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님, 그만 하세요. 너무 많아서 가격이 너무 내려가고 있어요’라고 말할 것”이라며 “휘발유 1갤런에 1.84 달러(약 2천672원)였던 때를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성탄마켓 차량 테러 용의자, SNS에 “큰일 벌어질 것” 예고

“정의구현 방법 알려달라” 적어 독일 당국 잇단 경고에도 못막아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앞서 소셜미디어에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독일 당국이 테러 징후에 대한 사전 경고를 받고도 막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용의자 탈렘 A(50)는 사건 이전에 소셜미디어에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8월에 올린 한 게시물에서는 “독일이 우리를 죽이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학살하거나, 죽거나, 혹은 자부심 속에 감옥으로 가겠다”고 했다.

같은 달 다른 게시물에는 “독일 대사를 날려버리거나 독일인을 무차별 살해하지 않고 정의를 구현할 방법이 있느냐. 누구라도 좀 알려달라”고 적었다.

독일 당국이 그의 ‘수상한 언행’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탈렘 A의 극단주의적 주장과 관련해 독일 정보당국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연방미안민청 관계자도 AP 통신에 지난 늦여름께 그에 대한 경고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교회 앞에서 시민들이 차량 돌진 테러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를 받았으며 “다른 많은 정보들처럼 진지하게 다루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일간 디벨트는 보안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연방경찰이 그에 대한 ‘위협성 평가’를 진행했으나 ‘구체적 위협’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인 기존의 테러범들과는 다른 ‘독특한’ 이력 때문에 그의 위협성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는 지적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으로 독일에 난민 신청을 해 영주권을 얻고 심리치료의사로 일해 온 탈렘 A는 박해받는 이슬람 여성들을 돕는 활동을 하며 반이슬람 운동으로 지역 사회에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독일 정부의 포용적 난민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반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극우당인 독일대안당(AFD)을 지지한 데 이어 자신이 독일 정부로부터 박해받는다는 인식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지 언론 등의 분석이다.

독일 수사당국은 탈렘 A를 5건의 살인 및 200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금해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가 공격 전에 빌린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비상 제동 장치를 고의로 췌 충격을 극대화하려 했다고 보고 차량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0명 이상 다쳤으며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중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도 경찰, 미성년자와 불법 결혼 5천여명 체포

아삼주 2023년부터 대대적 단속

인도 경찰이 18세 미만 아동과 불법으로 결혼한 사례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약 5천여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힌두스탄 타임스 등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아동 결혼 폐지 운동을 펼친 인도 북동부 아삼주는 최근 416명을 체포하는 등 지금까지 약 5천여명을 불법 아동 결혼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법적으로 18세가 돼야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시골 지역에서는 부모가 재정적 안정을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인도 당국은 아삼주처럼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아동 결혼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2017년 미성년자 아내와 성관계하는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덕에 인도에서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 미성년자의 비율이 2005-2006년 47%에서 2019-2021년 23.3%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삼주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아동 결혼에 맞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회적 악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가감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혼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국가에서 미성년자일 때 결혼한 사람은 2억9천만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민주공고서 또 선박 전복...“38명 사망·100여명 실종”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공고)의 하천에서 선박 전복 사고로 38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실종됐다고 AP 통신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구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늦은 오후 수도 킨샤사 동북쪽 부시라강에서 배가 뒤집혔으며 지금까지 시신 38구를 수습하고 20명을 구조했다. 지난 17일 킨샤사 동북쪽 마이인돔베

주 피미 강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로 25명이 숨진 지 사흘 만이다.

한 현지 주민은 “보엔데 마을로 가던 선박이 도중에 잉겐데와 롤로 두 마을에서 기항해 400명 넘게 태웠을 것”이라며 “사망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공고의 하천과 호수에서는 선박 노후화, 안전 장비 부족, 과적 등으로 선박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